

2023년 3월 6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쪽(붙임 3쪽), 사진 4장	문의: 대외협력과 홍보기획팀장 정명숙
전화: 02)746-9074	팩스: 02)746-9069 이메일 : brightms@karts.ac.kr

한예종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 2023 폴란드 베토벤 부활절 페스티벌 초청 공연

- 2023년 폴란드 베토벤 부활절 페스티벌 현지 개막공연 공식 연주 단체 초청
- 국내 최정상 음악가, 정치용 명예교수 지휘 및 피아니스트 문지영 협연
- 폴란드의 거장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의 교향곡 제5번 '한국' 연주
- 해외 투어 전야제로 제76회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 3월 15일(수) 오후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 [전석 초대]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이하‘한예종’) 음악원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3월 유럽의 클래식 음악 축제 중 하나인 ‘2023 제27회 폴란드 베토벤 부활절 페스티벌’에 현지 개막공연 공식 연주 단체로 초청받아 페스티벌 투어를 갖는다.

주폴란드한국문화원과 폴란드 베토벤 협회의 공동 주관으로 실시되는 이번 페스티벌 투어는 작년 4월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온라인으로 참여한 제26회 폴란드 베토벤

부활절 페스티벌 공연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이 공연 실황은 공개와 동시에 베토벤 협회 및 폴란드 현지의 큰 호평을 받았고, 대한민국의 클래식 음악 수준에 주목한 폴란드 베토벤 협회 측은 대한민국을 ‘주빈국’으로 초청하였다.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페스티벌 기간 중 개막공연을 포함해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총 3회의 공연에 참가하며, 폴란드의 3개 도시를 방문하게 된다.

음악원 기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93년 음악원 개원과 함께 창설된 이후 해마다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이강숙홀 등 대규모 연주홀에서 꾸준히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에도 수차례 초청되어 뛰어난 연주로 대한민국 대학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페스티벌 초청 공연에 앞서 제76회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 동일한 레퍼토리를 선보여 국내 클래식 관객들의 눈과 귀를 먼저 사로잡는다. 정기연주회는 3월 15일 (수) 오후 7시 30분 롯데콘서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연주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이자 오스트리아 문화부 장관상 수상자인 정치용 명예교수가 지휘를 맡고,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와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콩쿠르 우승 이후 가장 주목받는 젊은 음악가로 세계적인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예종 동문 피아니스트 문지영이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연주회 1부는 베토벤의 고뇌와 열정이 담긴 서곡 <에그몬트>를 서두로 시작하여 쇼팽의 사랑에 대한 열망을 담은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바단조 Op. 21로 이어진다. 공연의 대미인 2부에서는 한국의 색채를 가진 곡들을 연주한다. 한예종 교수로서 오랜 시간 후학을 양성했던 작곡가 이영조의 <여명>과 폴란드의 거장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가 작곡한 교향곡 제5번 <한국>이 바로 그렇다. 특히 펜데레츠키의 <한국>은故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 작곡하였으며 국내에서 작곡가가 직접 초연하였다. 우리 국악기 ‘편종’이 서양 음악 안에서 독특한 표현적 역할을 해내는 점이 주목할 만한 요소다.

강은영 주폴란드한국문화원장은 “이번 한예종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의 펜데레츠키 교향곡 제5번 <한국> 연주는 양국 문화교류사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 광복 50주년을 기념해준 폴란드 작곡가에 대한 감사와 양국 우정과

화합을 기원하는 메시지가 폴란드 국민들에게 잘 전해지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강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장은 “문화교류적으로 양국에게 큰 의미가 있는 연주회로 음악원 개원 30주년의 포문을 열게 되어 굉장히 영광스럽다. 또한 팬데믹으로 한동안 공연의 기회가 축소됐던 학생들에게 뜻깊고 자랑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 한국의 미래를 밝혀나갈 젊은 음악가들에게 박수로 길을 열어달라.”라고 밝혔다.

이번 국내 공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홈페이지(www.karts.ac.kr)에서 온라인 예매만 가능하다. 전석 무료. 문의: 02-746-9270, 927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공연기획실 이승현(02-746-92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제76회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공연 개요

- 행 사 명: 제76회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일시/장소: 2022. 3. 15.(수) 19:30 / 롯데콘서트홀(송파구 올림픽로 300)
- 공 연 자: 정치용 명예교수(지휘), 문지영(협연),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연주)
- 주 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 문 의: 음악원 공연기획실(02-746-9270, 9273)

□ 프로그램

- 베토벤(1770-1827): 에그몬트 서곡, Op. 84
(L. v. Beethoven: 'Egmont,' Op. 84: Overture)
- 쇼팽(1810-1849):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바단조
(F. F. Chopin: Piano Concerto No. 2 in F Major, Op. 21)
- 이영조(1943-): 오케스트라를 위한 '여명'
Young Jo Lee: 'Glory of Dawning' for Orchestra)
-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1933-2020): 교향곡 제5번 '한국'
(Krzysztof Penderecki: Symphony No. 5, 'Korea')

□ 연주자 프로필

○ 지휘 _ 정치용 명예교수

대한민국 최정상급 지휘자로 평가받는 지휘자 정치용은 뛰어난 바톤 테크닉과 곡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 내는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지휘로 단원들을 이끌어가는 품격 높은 음악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5세에 피아노로 음악을 시작했고 서울음대 작곡과를 거쳐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음대에서 지휘를 전공, 세계적 거장 미하엘 길렌으로부터 본격적인 지휘 수업을 받았다. 유학시절 오스트리아 국영방송이 주최하는 국제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 세계 악단의 주목을 받았으며 최우수 졸업과 동시에 오스트리아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잘츠부르크 국제여름음악제 부지휘자를 거쳐 라이프치히 방송교향악단, 뮌헨 심포니, 미시간스테이트 심포니, 프라하 방송교향악단, 러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을 객원지휘하며 섬세하고 깊이 있는 음악을 도출해 내는 지휘자라 호평을 받았다.

1993년 서울시향을 지휘하며 고국 무대에 데뷔한 그는 서울시향 단장 겸 지휘자,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음악고문을 비롯해 KBS교향악단, 부산시향, 대구시향, 대전시향, 부천필, 원주시향, 국립국악관현악단 등 국내외 주요 교향악단을 수시로 지휘하며 관현악곡 및 오페라, 현대음악과 전통음악 등 음악 전반에 걸쳐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정치용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작품의 국내 초연을 가장 많이 한 지휘자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으로 관현악곡 “교향곡 제1번”, “화염 속의 천사”, 오페라 <류통의 꿈>, <나비의 미망인> 등을 연주하였다. 또한 오페라 지휘에도 탁월한 능력을 선보여 <호프만의 이야기>, <코지 판 투테>,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라 보엠>, <카르멘>, <돈 파스칼레>, <루치아>,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등 다수의 작품을 지휘하였고 <행주치마 전사들>(임궁수 작곡), <백범 김구와 상해 임시정부>(이동훈 작곡), <메밀꽃 필 무렵>(김현옥 작곡), <천생연분>(임준희 작곡) 등을 초연했으며, 특히 2007년에 국립오페라단에서 특별 기획한 알반 베르크의 오페라 <보체크>를 국내 초연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수상 경력으로 오스트리아 문화부 장관상, 제5회 김수근 문화상 공연예술상, 제3회 문화관광부 선정 젊은 예술가상, 제3회 뮤지컬 대상 음악상, 한국음악상 본상 등을 수상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인천시립교향악단, 창원시립교향악단의 예술감독, 상임지휘자를 역임한 정치용은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지휘과 명예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협연 _ 문지영

“이 시대에서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음악성의 자연스러움을 그녀에게서 발견했다.”

-부조니 콩쿠르 심사위원장 외르크 데무스 -

스위스 제네바 국제 콩쿠르와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문지영은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들과의 협연과 세계적인 무대에서의 독주회를 통해 가장 주목받는 젊은 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로 명성을 쌓고 있다. 1957년 두 콩쿠르에서 모두 우승한 피아노 여제 마르타 아르헤리치의 행보를 닮은 연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문지영은 부조니 콩쿠르의 심사위원장 외르크 데무스로부터 ‘이 시대에서는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음악성의 자연스러움을 그녀에게서 발견했다’는 극찬을 받았다.

문지영은 정명훈을 비롯하여 리오넬 브랑기에, 알렉산더 셀리, 발렌티나 펠레지, 디트리히 파레데스, 로베르토 벨트란-자발라, 다니엘 보이코, 빅토르 파블로 페레스, 마리오 벤자고, 벤자민 베일, 사샤 괴첼, 제임스 저드, 요엘 레비, 김대진 등의 지휘로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재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탈리아 트리에

스테 베르디 극장 오케스트라, 올림피코 극장 오케스트라, 부조니 누오바 오케스트라, 상트 페테르부르크 심포니, 이탈리아 팔레르모 클래식 심포니 오케스트라, 헝가리 마브 심포니 오케스트라, 마드리드 주립 오케스트라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국내 무대에서는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대전시향,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구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부천필하모닉, 부산시향, 수원시향, 광주시향, 창원시향, 춘천시향, 전주시향, 대구시향 등 다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파리 에콜노르말 코르토홀, 프라하 루돌피눔 드보르작홀, 폴란드 비드고슈치 아르투르 루빈스타인 필하모니, 뉴욕 스타인웨이 홀, 영국 위그모어홀, 헝가리 리스트 아카데미 등 전 세계 저명한 공연장과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과 그의 유럽 페스티벌, 이탈리아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 페스티벌, 팔레르모 클래식 페스티벌 등에서 리사이틀을 진행하였으며, 뉴욕을 포함한 미국 동부 리사이틀 투어를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일본, 아르헨티나, 러시아, 스위스, 멕시코, 페루, 벨기에, 덴마크 등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

문지영은 2022년 폴란드 두슈니키 쇼팽 국제 페스티벌을 비롯한 국내외 무대에 초청되어 그녀의 연주력을 증명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강릉시향과의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국내외를 활발히 오가며 연주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연주 _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KNUA Symphony Orchestra)



1993년 음악원 개원과 함께 창설된 ‘크누아심포니오케스트라’는 대한민국 대표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는 정치용 명예교수의 지휘 아래, 뛰어난 연주력으로 대학오케스트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이강숙홀 등 대규모 연주홀에서 매

해 꾸준히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 연주회를 통해 클래식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국내 연주뿐만 아니라 독일, 러시아, 미국, 중국 등에서 초청받아 다수의 해외 연주를 개최, 해외 현지 및 언론에 찬사를 받기도 하였다. 2022년 4월, 유럽의 저명 클래식 음악 축제 중 하나인 ‘폴란드 베토벤 페스티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였으며, 2023년에는 동일 페스티벌의 주빈국 연주 단체로 초청받아 오는 3월 폴란드 현지에서 개막 공연 무대를 앞두고 있다.